

그리스도의 마음 (고린도전서 2:12-16)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면 많은 응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나의 마음과 생각과 인생이 하나님과 통하게 될 것이다. 오늘 그런 은혜를 깊이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사무엘상 17장 29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가 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러 갔을 때 전쟁터에서 자기 큰 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화를 냈다. 그 큰 형에게 막내 다윗이 한 말이다. 내가 왜 이유가 없겠냐는 것이었다. 다윗은 이유가 있어서 왔다는 말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원수를 죽이러 왔다는 것이다. 이 말을 했다면 큰 형 엘리압이 더 큰 소리를 질렀을 것이다. 다윗의 마음에는 언약과 확신이 있었기에 구체적인 것은 말하지 않았다. 내가 왜 이유가 없겠냐는 것이다. 몇일전에 한 램넛트를 만났다. 가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램넛트였다. 과연 많은 갈등의 시간을 보냈다. 그 동안에 죽고 싶은 때도 많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죽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생각은 없다고 한다. 왜냐면 살아가 할 이유를 발견했다는 것이다. 나도 앞으로 어려운 사람 돕고 하나님의 복음 운동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안 죽는다는 것이다. 그럴 생각도 안한다는 것이다. 그 날 저는 사실 2-3시간 정도를 각오하고 나갔다. 적어도 2-3시간은 이야기 해야 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그냥 밥만 먹고 집에 왔다. 왜냐하면 답 났으니까. 이것 말고도 몇가지 더 믿음의 소리를 나에게 했다. 그래서 돌아오면서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했다. 아주 어려운 가정인데, 이 아이가 답이 난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다. 언약을 가진 자는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이다. 우리 램넛트 중에 이런 고백을 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생각해봤다. 어려움은 축복인 것이다. 진짜 답나면 응답 받는다. 이제 그 마음에 언약이 있다. 그래서 안 죽어.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가? 살아가 할 이유가 있는가? 단순한 이유가 아니고 그것이 내 가슴에 언약이 되면 반드시 기적으로 바뀐다. 아주 틀림이 없다. 이 이유가 다 있기 바란다. 없으면 잘 살아도 나중에 계산해보면 방황이다. 이 램넛트가 자기가 잡은 이유대로 많은 증거대로 인생을 살기 바란다.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되기 바란다. 출발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다. 이것이 출발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훈련이다. 거기에서 그리스도와 통하게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통한다. 세상을 정복한다. 이것 말고는 길이 없다고 말한 것이 요한복음 14:6이다. 내가 길이라고 하였다. 오늘도 이 길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축복이 있기 바란다.

1. 그리스도의 마음

사도행전 17장을 읽어보면 베뢰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핍박을 유대인들로부터 많이 받았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하면 사람이 죽을 것 같으니까 베뢰아에 있는 제자들이 사도바울을 데리고 아테네로 데리고 왔다. 베뢰아에서 아테네까지는 한 320km 정도 되는데, 그 때 사도바울은 혼자만 내려오고 디모데와 실라를 거기에 남겨두었다. 그래도 디모데와 실라는 사도바울이 할수 있는 일을 후속적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남겨놓았다. 그 때는 걸어서 다녀야 되기 때문에 320KM를 가려면 한 달정도는 걸렸을 것이다. 그렇다면 한달정도 거기서 내려오는 동안에 디모데와 실라는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베뢰아 사람들이 사도바울을 데리고 아테네로 올 때 그 사람들이 돌아갈 때 이야기하기를 가면 즉시 디모데와 실라를 이리로 보내라고 하였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돌아가는 또 한달동안 디모데와 실라가 거기서 사역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디모데와 실라가 한달정도 걸려 또 내려와야 한다. 그러면 사도바울은 아테네에 약 두달정도 있었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고 하면 자연적으로 전도를 하게 되지 않겠는가? 아테네는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고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자연히 우상이 있었다. 인간의 철학이 뭐가 있겠는가? 그래서 사도바울이 기록하기를 어떤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단을 쌓아 놓은 곳도 있더라고 말하였다. 머리로 알려고 하니깐 당연한 결과이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

까 이 사람들이 똑똑하다 보니 논쟁이 붙게 되었다. 사도바울도 지식으로 하면 부족하지 않으니까 논쟁이 붙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마지막에 보면 그 중에서 몇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사도바울의 전도가 여기보다 더 실패한 곳이 없다고 말한다. 2차 선교여행중인데, 16장은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발견하고 전도운동이 일어났다. 그 이후에 데살로니가, 고린도 기타등등, 아시아에 난리가 난다. 그런데 아테네에는 제자가 없는 것이었다. 사도바울이 떠났으면 제자들이 남아서 복음운동이 일어나야 하는데 아테네는 제로였다. 그래서 가장 실패한 곳이었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사도바울이 결심한 내용이 있는데, 이게 그런 뜻이라고 성경학자들이 해석한다. 오늘 본문은 2장 전체를 읽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상 뒤쪽만 읽었다. 2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알량한 지식 필요없고 복음 전하는 것 말고 안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라는 것이다. 4절에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제 내 말 안하겠다는 것이다.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는 것이다. 5절에는 더 설명을 한다. 이유가 뭐냐면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사람의 지혜 말 안하고 오직 그리스도 말하고 끝낸다는 것이다. 이후에 계속 읽어보면 우리가 말하는 지혜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7장에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그것은 감추어졌던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는 것이다. 내용은 그리스도이고 만세전에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로마서 16장 25-27절에 보면 같은 말씀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감추었던 그 비밀을 말한다는 것이다. 계속 더 읽어보면 10절은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신다고 기록하고 있다. 통달한다는 것은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2절을 말씀하셨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귀신이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인데,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냥 지나갈수 있는 말인데, 엄청난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바울은 이 세계가 엄청난 것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다. 은혜로 주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런데 만일 사람이 구원을 진짜 알면 어떻게 되겠는가? 엄청난 것이 되어서 일단 세상을 뛰어넘게 될 것이다. 사람을 뛰어넘을 것이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 신경을 안 쓰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늘 살게 될 것이다. 차원이 다를 것이다. 여하튼 세상을 넘어선 차원일 것이다. 이 구원을 사도바울은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정말로 엄청난 단어를 써야 할 것이다. 구원을 알면 아무것도 걸릴 것이 없다. 기도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다. 깊이 알면 어떻게 되겠는가? 삶이나 영적인 것이 모두 달라질 것이다. 그리스도의 보혈, 너무나 귀하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다. 정말로 원죄의 모든 저주를 꺾는 것이 이 피라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정복 바로 하게 될 것이다. 어디에 걸려 넘어지겠는가? 넘어진들 넘어지겠는가? 이것 말고도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느냐는 것이다. 이 외에도 수많은 것이 이미 은혜로 주어졌다. 이것을 본 사도바울의 고백이다.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주셨다는 것이다. 놀라운 고백이다. 발견했다는 것이다. 내가 이것을 알게 되었다. 이 놀라운 은혜로 주신 모든 것을 알게 하려고 성령님을 주셨구나. 그리고 15절에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령한 자는 성령의 눈을 가진 자인 것이다. 영안이 열린 자일 것이다. 설명하려면 수많은 단어가 필요할 것이다.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가진 사람일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사람일 것이다. 오늘 그것을 다 체험해서 사실적으로 답이 난 사람이다. 한 차원 높이 사는 것이다. 세상에 속하여 사

는 자가 아니라 신령한 자이다. 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 사람도 알수 있고 세상도 알수 있고 사건도 알수 있다. 모든 것을 다 알수 있는 눈이 있다는 것이다. 신령한 자.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하는 판단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판단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판단을 받지 왜 안받겠는가? 사도바울도 비난 많이 받았다. 그러나 관계 없다. 그 판단이 내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해도 관계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신령한 자, 곧 하나님과 통한자는 이렇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의 말에 상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한 고백이다. 나는 이렇다. 그리고 누가 뭐라해도 나는 아무 상관 없고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 그것 외에는 상관할것이 없다는 것이다. 16절,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내가 주의 마음을 알면 얼마나 알겠느냐는 것이다. 내가 그를 가르치다니 감히 말이나 되냐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주의 마음을 알겠다는 사도바울의 고백인 것이다. 이런 말을 할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사도들이 다 그랬겠지만 이런 말을 한 사도는 없다. 고린도 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것이라고 하였다. 우리라고 했지만 자신 개인의 고백인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이다. 우리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바란다. 너 믿나? 물으면 믿는다고 말한다. 너 그리스도 아냐고 하면 조금 그럴 것이다. 너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너는 정말 이 시대를 두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생각하냐? 전도자인가? 나는 전도자다. 생각해 보기 바란다. 나는 이 시대를 두고 하나님 앞에 선 렘넌트 운동가이다. 나는 내가 부족해도 미국을 살릴자이다. 어떤가? 가슴에 있는가?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사는가? 무엇을 위하여 사느냐는 것이다.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유가 있는가? 답안이면 어떻게 되나? 방향하게 된다. 살고 난 후에 하나님의 열매가 없다면 방향했다는 결과이다. 나는 남미의 역사를 바꿀자다. 어떤가? 밖에 가서 말하면 미쳤다고 할 것이다. 하나님은 뭐라하실까? 계속 하라고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돕겠다. 미국의 역사를 바꿀자다. 어떤가?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것이다. 이렇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는 시간표가 아니고 나는 지금 그렇다고 말해야 한다. 그것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와서 언약으로 자리 잡았다고 고백해야 한다. 세상이 나에게 뭐라 해도 관계 없다.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다. 내가 부족한 사람이지만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어떤가? 내가 부족하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맡은 자야. 믿는 것이 아니고 고백이 되어서 자기가 자신을 확인한 자, 그 사람이 답 난 사람이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란다. 이 사람, 반드시 정복한다. 세상에 모든 것을 정복할 것이다. 누가 나를 판단하든 상관 없다. 거기에 걸려서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없다고 발견된 사람이다. 그 사람을 보고 신령한 자라고 하는 것이다. 이미 이런 사람은 정복했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제목되기 바란다. 출발은 어떻게 하는가? 사도바울을 보면 안다.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 시작이 된다.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함께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스도 언약으로 잡아야 한다. 부족하고 안되도 고백해야 한다. 다시 한번 오늘도 심어야 한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 세계 복음화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이것이 출발이다. 다시 한번 오늘 확실한 출발 하는 날이 되기 바란다.

2. 파수꾼 기도

하나님 나라는 기도로 파수하지 무기로 하는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다 하신다. 우리가 할 일은 기도이다. 이사야 62장 6-7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그리고 7절에는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여호와께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기 까지

쉬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눈에 보이는 파수꾼이 아니다. 성벽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기도자이다.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셨다.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쉬지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여 온 세상이 그를 찬송하게 되기까지, 너는 계속 기도하여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의 소원이 다. 이것이 파수꾼 기도의 핵심적인 말씀이다. 계속 기도하라는 말씀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라는 것이다. 참 귀한 말씀이다. 우리는 주로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다. 조금 더 나아가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주위의 사람들, 현장에 만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다. 그리고 때로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세계 복음화를 위해 기도한다. 귀한 것이고 지속해야 한다. 근데 근래에 7망대 기도를 하면서 우주시대라서 우주 살리는 기도를 한다고 들었다. 그런데 어느날 이 그림이 나도 기도하는 중에 들어왔다. 우리의 기도는, 권세는, 언약은 공중권세 잡은 자를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우주를 살리는 정도이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죽이는 것도 대단하지만 우주를 살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셨다. 그 중에서 지구는 점 하나도 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 우주 위에 보좌 위에서 하나님은 보좌 위에서 세상을 통치하신다. 그 보좌에까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보좌까지 소통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이다. 그림을 생각해보라. 우주는 어떤 분의 말을 들으니 빛의 속도로 움직이면서 계속 돌아간다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놀라운 일이다. 이 큰 우주가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것. 그리고 계속 생성이 된다는 것이다. 그 위에 보좌가 있다. 바로 위는 아닐거이다. 얼마나 높은지는 모른다. 그런데 그 보좌에 우리의 기도가 들린다.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여기서 풀면 거기서도 풀린다고 하였다. 이런 그림으로 보면 대단한 미국이 아니고 조그마한 미국이다. 오히려 내가 미국보다 더 크다. 남미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우주에 있는 눈으로 미국과 남미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 이 눈으로 인생을 보는 것이다. 이것이 구원 받은 우리의 모습이고 권세이다. 허황된 그림이 아니다. 사실이다. 본래부터 이런 것이었는데, 우리의 눈이 거기에 도달이 되지 않은 것이다. 우리를 보고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우주 어딘가에 사단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화성에 가도 사단은 찾아올 것이다. 초창기에 어떤 분이 어머니가 무당인데, 어머니도 밭고 귀신도 미워서 한국에 있는 어떤 미국인과 결혼해서 텍사스 어디로 왔다. 거기로는 안 올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날 해가 지고 난 후 우연히 창문을 봤는데, 거기에 귀신이 와 있었다는 것이다. 참 황당하고 방법이 없어서 이 사람이 복음을 알게 된 것이다. 자기 안에서 난리가 났을 것이다. 땅의 일 정도가 아니다. 우리는 이 우주를 지키는 파수꾼이다. 그리고 쉬는 시간에 조그마한 미국을 살리는 것이다. 쉬는 시간에, 간단하게 남미가서 남미 살리는 것이다. 그들의 역사를 지키고 흐름과 문화를 살리는 것이다. 거꾸로 가고 있는 흐름을 바로 돌려 세워야 한다. 영적인 것을 지켜줘야 한다. 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사도바울은 이 마음이 자기 안에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나는 그것에 영향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그들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도 얼마나 영안이 열렸는가? 옛날에는 몰랐다. 귀신이 옆에 있어도 안 보였다. 알고 보니 이유가 한 개였다. 복음을 몰라서.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모르니 귀신이 있어도 모르는 것이었다. 우리는 얼마나 영안이 커졌는가? 전에는 귀신 이런 소리 하는 것은 무당이나 기도원 파들이 하는 소리로 생각했다. 성경에 수없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는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귀신 이야기 하고 결박한다. 우리가 이 말이라도 못했으면 우리가 우리 안의 영적 문제에 대해 얼마나 대적했겠는가? 얼마나 놀라운가? 그 정도가 아니고 세상의 모든 일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 바란다. 다 알면서도 아무런 상관 없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행하는 자가 되기 바란다. 출발은 그리스도이다. 그것을 언약으로 잡고 다시 한번 고백하는 정시기도인 것이다. 안되도 이 언약의 단을 계속 쌓는 자에게 어느날 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오늘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 바란다.